



전주대, 유학생·직원 연계 글로벌 프렌즈-동행 운영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지난 14일 유학생과 직원을 연계한 II 글로벌 프렌즈-동행 결연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결연은 이프미(직원)와 파르미(유학생) 1:1로 매칭, 13팀이 참여해 정기적인 상담, 문화교류, 문화 체험, 그룹 토론 사무실 및 가정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는 한 명 유학생을 사랑으로 품고 그 꿈을 응원해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중국 유학생 주간(경영학과) 씨는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멋도 내고 자유롭게 놀고 싶지만 학업과 언어학습,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학교의 도움으로 선생님이 이끌어 주 너무 기쁘다"며 "반년을 통해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 변화된 유학생들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장 제혜금 교수는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며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도통동, 약 달력 30세트 재능 기부

남원시 도통동은 지난 19일, 쓰임 사회적협동조합(대표 변수봉)에서 만성질환자 어르신들을 위한 약 달력 30세트(한가액 120만원)를 제작해 등에 재능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능기부는 어르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약 달력은 제때 약을 드시기 못하거나 증복으로 복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 단위로 만든 달력이다. 도통동은 이날 쓰임 사회적협동조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가정의 오래되어 사용이 불편한 가구를 업사이클링 지원하고, 집안 정리정돈도 지원하기로 했다. 변수봉 대표는 "앞으로도 등에서 추가적으로 약 달력을 요청하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덕과면 발전협, 추석 맞아 후원금 기부

남원시 덕과면 발전협의회(회장 이종대)는 추석을 맞아 후원금 200만원을 기부해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덕과면에서는 후원금 200만원으로 쌀 60포를 구입해 관내 수급자, 독거노인 등 60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마을주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뜻 전하였다. 한편 서지호 덕과면장은 "차질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도 함께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경찰, 흥삼축제 대비 불법촬영 근절 스티커 부착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20일 2023년 흥삼축제 등을 앞두고 북부미산 주변 등 공중화장실을 위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스티커를 부착했다. 2023년 흥삼축제로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장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안경찰서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카메라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적외선탐지기, 진파탐지기,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처벌에 대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흥삼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하고 있다. 주현오 서장은 "선제적으로 성범죄 예방활동을 시행해 안전하고 평온한 흥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수시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명감 갖고 헌신적 활동에 감동”

전북자봉센터, 세계잼버리 참여 자원봉사자 해단식 갖고 3500여 봉사자들 격려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기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한 자원봉사자들의 해단식이 열렸다. 전북도에서 따르면 20일 한국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김관영 도지사, 박정규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고 세계잼버리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빛나게 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는 것이다. 지난 세계잼버리에서 영의 활동인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3,49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기본소양과 직무교육, 현장교육 등 여러 과정들을 거친 뒤 각각 현장에 투입돼 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보조 역할은 물론 전라북도 민간 외교관으로서 면모를 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이번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여준 헌신적 활동과 아낌없는 사랑에 감동했다"며 "한분 한분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폭염속 구슬땀을 흘리며 사명감과 친절함 미소와 안내로 최선을 다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재훈 기자



한편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활동장에 배치된 자원봉사자가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도록 각 프로그램 활동장에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관리자를 투입해 적극 지원했을 뿐 아니라 대회 종료 후에도 자원봉사를 펼쳐 왔었다. 이날 해단식에서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게 도지사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미자 전라북도자원봉사협의회장(장수군자원봉사센터장)은 "국제행사를 잘 경험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아주 큰 경험의 시간이었고, 봉사자들도 많은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무주교육지원청·건양대병원, 업무협약 체결

무주교육지원청과 건양대학교병원은 20일 건양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에서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승기 교육장과 김천수 헬스케어센터 부센터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상호발전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무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병원의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발전과 무주 지역 사회의 건강·복지 증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 교육지원청·군의회 교육정책 협의회 개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20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의원 및 업무관계자 20여명을 초청하여 교육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교육사업을 군의회와 긴밀하게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특히, 내년도 추진 예정인 글로벌 역사 문화체험 연구 사업에 대한 군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줄이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으로 이어지는 장학금 기탁 열기가 뜨겁다. 20일에는 (주)삼일테크(대표 장기주)에서 300만원, (주)동명이티아이(대표 김민정)에서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장기주 대표와 김민정 대표는 "무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과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 마음까지 보낼 수 있어 흐뭇하다"면서 "무주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지역사회의 발전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안정남 정읍 엘디마트 대표,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지역사회의 뜻을 기부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는 20일 상동 소재 엘디마트 안정남 대표가 시장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대표는 어린이날과 성탄절에 어린이를 위한 마트 행사를 개최하고 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해마다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장학재단 기탁은 이번이 3번째로 총 3000만원을 기탁했다. 안 대표는 "정읍의 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해 훌륭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임실·순창 등 승화원 광역 사용 협약

남원시는 지난 19일 임실군과 순창군과 지시청 회의실에서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 앞으로 동부권 3개 시군이 승화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식에서는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내 화장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인구 비율로 공동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승화원 광역 사용협약을 통해 남원시는 승화원 운영 중에 발생하는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경감되고 운영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실군과 순창군은 향후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후부터 관내 기준(사용료 6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인구소멸 시대에 승화원 광역화 사업을 통해 3개 시군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 체결식
일시: 2023. 9. 19(화) 17:30 장소: 남원시청 회의실

진안사람들 다 모인다... 제5회 전국 진안향우 만남의 날

전국에 있는 진안군 향우 1,200여명이 고향 진안을 찾아온다. 제진안군향우회에서 주관하는 제5회 전국 진안향우 만남의 날 행사(대회장 윤석정)가 2023 진안흥삼축제 마지막 날인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문예체육회관과 흥삼축제 주무대에서 각각 진행된다. 문예체육회관에서 진행되는 1부 기념식에서는 내빈 축사와 전국 진안향우회 소개에 이어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전달한다. 특히 1,200여명 분의 대령 비법집을 비비는 퍼포먼스를 통해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주무대에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시상식 및 공연을 진행한다. 시상식은 전춘성 진안군수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진안인상' 12명(최영진(인천), 이종환(부산), 기만기(익산), 김정걸(대전), 정경채(인천), 전영희(군포), 유재진(익산), 전종진(전주), 조남환(이천), 이영복(서울), 김모일(서울), 진주개인택시진안군향우회)과 윤석정 대회장이 수여하는 '진안의 인물상' 5명(마이키타샤 주지 진성, 진안군에향본부 본부장 우태만, 안천면이장협의회 회장 허재택, 진안군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 진안군 황승우 주무관)이 수상한다. 축하공연은 초대 가수 임수정, 오정해, 별사탕이 무대에 오르며, 고향가수로 황해미(진안읍), 주채연(진안읍), 이철진(안읍), 오정숙(마령면), 정음(마령면), 전가희(백운면)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향우 회원들의 노래자랑으로 흥을 돋우고 시상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총괄 지휘한 윤석정 대회장은 "고향 진안이 발전하려면 전국의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한다"면서 "전국 향우들이 고향에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진안군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주개인택시진안군향우회)과 윤석정 대회장이 수여하는 '진안의 인물상' 5명(마이키타샤 주지 진성, 진안군에향본부 본부장 우태만, 안천면이장협의회 회장 허재택, 진안군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 진안군 황승우 주무관)이 수상한다. 축하공연은 초대 가수 임수정, 오정해, 별사탕이 무대에 오르며, 고향가수로 황해미(진안읍), 주채연(진안읍), 이철진(안읍), 오정숙(마령면), 정음(마령면), 전가희(백운면)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향우 회원들의 노래자랑으로 흥을 돋우고 시상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총괄 지휘한 윤석정 대회장은 "고향 진안이 발전하려면 전국의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한다"면서 "전국 향우들이 고향에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진안군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자봉센터 해피봉 가족봉사단 오색송편나눔

완주군자원봉사센터 해피봉가족봉사단(단장 송동수)이 20일 추석을 맞이해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색 송편을 보냈다. 이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해피봉 가족봉사단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형형색색 송편을 직접 빚고 포장했다. 이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 손수 만든 송편은 가족봉사단 읍면 단장과 사)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를 통해 13개 읍면의 소외계층에게 직접 전달됐다. 해피봉가족봉사단 송동수 단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석 명절에 맛있는 송편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도동지구대(대장 황인용)는 지난 19일, 명절 특별방범 대책에 따른 가시적 경찰활동 및 대국민 안전활동을 통한 일상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차인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및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관 및 도동자율방범대 총 25명이 참석, 황 지구대장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활동의 중요성과 민·경 협력차이를 강조하였으며, 이들은 간담회를 마친 후 야간 시간대 상가 및 인구 밀집지역 및 112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한편 황인용 지구대장은 "지속적으로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지역사회 순찰활동 및 야생 금융사기 예방 등 협력차인 활성화로 주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